

지역 소식통

농기계 사용 '안전하게'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20일 소성면에 위치한 서남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실습 교육' 실시했다.

이날 현장 교육에는 지역 내 농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농기계에 따르면 농업기계는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 유용하지만 부주의나 미숙한 또는 음주운행 시 큰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서 철저한 안전교육과 조작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농기센터는 이날 교육에서 영농철 농업기계 사고사례에 대한 안전교육과 사용이 많은 경운기, 관리기, 농용굴삭기 등의 조작 방법에 대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더불어,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이날 교육을 받은 한 농업인은 "실제 농업기계 사고사례 위주의 교육이 진행돼 경각심을 갖게 됐다"며 "안전이 익숙해지더라도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며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푸드협 분과회의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일 부안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 부안 푸드플랜 민관 거버넌스인 '부안 푸드협의회 분과회의'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올해 초 공개모집을 거쳐 2월 에 구성된 '부안 푸드협의회'는 민간위원 49명, 실무협의팀 17명으로 총 66명 3개 분과(먹거리 공급분과, 공공 먹거리분과, 지역푸드 자원화분과)로 6월말까지 활동하게 되며, 주민 참여형 푸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구로서 부안만의 특색을 담은 부안형 푸드플랜 수립에 군민의 의견수렴 역할이 될 것이다. 부안 푸드협의회는 지역 내 먹거리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분과별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전략과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등 거버넌스 민간분야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분과회의는 푸드플랜 추진개요 설명, 분과별 선출 및 토론주제 선정, 분과별 주제 토론 및 종합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스마트 축산 시동

첨단 ICT기술 접목 지역 양계사업 소득증대 나서

공모 선정... 지능형 계사플랫폼 확산사업 추진

정읍시가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농가 소득증대에 나섰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확산사업'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사물인터넷 활용 제품·서비스 개발 사업을 평가해 우수한 평점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해 공모과제로 추진한 사업이다.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ICT 융합 산업 선점을 위해 시비 1억4천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사물인터넷 기반 지능형 계사 플랫폼 확산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사물인터넷 기반 지능형 계사 플랫폼 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해 시는 지역의 양계사업 소득 증대 실현과 농·생명 산업 성장동력을 위해 20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주)이모션과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양계농가에 최적의 출하 시기 확인을 위한 스마트 저울과 계사 내 구동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한국형 환경제어시스템을 보급할 예

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총사업비 7억6천만원(국비 3억5천만원, 도비 6천250만원 등 포함)으로 스마트 저울 40동과 환경 제어장치 7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양계의 계측을 통해 적정 시기에 출하해 사료비를 절감하고, 계사 내 환기 팬, 조명, 급이기, 급수기, 히터기 등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으로 노동력 저감 등 농가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ICT 기술을 접목한 양계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스마트 축산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진섭 시장은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노동력 저감은 물론 양계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축산업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해 농가 소득향상과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서해안 지질공원 지오파트너 협약

슬지제빵소 등 5개 기업 참여, 협력 관계 구축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정의된 지질공원은 지질자원과 비지질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모색하고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 서해안은 2017년 9월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지질공원 운영에 지역주민과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오파트너 발굴, 지오상품 개발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전라북도 공예협동조합, 유유마을, 모항마을, 별장화집, 향토바

지리축 기관은 2017년부터 지질공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해가며 탐방·체험 프로그램, 축제 등 지역과 지질공원 활성화를 협력했다.

부안은 더 넓은 분야에서 지역주민들이 우리군의 다양한 자원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질공원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 지오파트너 협약을 진행했다.

20일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 지오파트너 협약식에는 부안군수와 부안을 대표하는 모항해나루가족호텔, NH농협생명변산수련원, 소노벨 변산, 바다호텔, 슬지제빵소 5개 기업들이 참여

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안군청과 협력기관들은 지질공원 교육과 관광, 지역상품과 체험프로그램 홍보, 탐방객 안내 및 편의 제공, 지질공원 및 지역축제에 대한 상호지원 등 지역경제 및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또한 협력 관계 구축으로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에 지역기업 및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권익현 부안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지질·생태·문화가 어우러지는 글로벌휴양관광단지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청소차, 새 옷 갈아입고 '부릉'

청소차량 외부 디자인 변경

고창군이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의 외부 디자인을 변경해 새로운 이미지를 선보인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외부 도색이 오래돼 불쾌감을 주던 청소차량 외관을 군의 핵심브랜드인 '높을고창'을 활용해 건강하고 역동적인 느낌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군은 청소차량과 압물버스 등 총 10

종 106대 중 56대를 우선 도색작업을 진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디자인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청소차량 외관 디자인 선정을 위해 지난달 군청 내부 직원과 군청 방문 민원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노후 청소 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체해 생태환경 수도 고창의 이미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차량 옆면에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을 표기해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청소차량이 고창군 곳곳을 달리면서 청소행정 홍보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유진섭 정읍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늦어져 20일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배영고등학교를 방문했다.

고3 등교 첫날... "코로나 극복 응원"

유진섭 정읍시장 배영고방문

유진섭 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늦어져 20일부터 등교수업을 시작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배영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학생들의 등교는 당초 개학일이었던 지난 3월 2일 이후 80일 만이다. 유 시장은 이날 오전 배영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맞이했다. 유 시장은 등교하는 3학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따뜻한 말을 전하며 축하와 응원의 인사를 건넸다. 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교직원들에게는 방역과 예방, 학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등교하는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상황이 바뀌었지만,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국가예산 확보 행정력 집중

부처별 방문·현지 전략회의

고창군이 원활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9일) 유기상 고창군수와 전 부서장이 정부대전청사와 세종시를 찾아 부처별 방문과 현지 전략회의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예산확보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5월 부처예산 마무리 단계에서 기재부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다.

오전에는 정부대전청사를 방문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을 만나 문수산 편백숲(별찬숲) 주변 확대개발사업(200억)을 비롯하여 문화재청 관련 사업들을 설명했다.

오후에는 세종시로 자리를 옮겨 환경청 자연보전정책관실 박연재 국장을 만나 고창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70억원)을 비롯해 국토부 철도정책과를 방문해 제4차(21~30)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만금에서 고창을 경유해 목표를 연결하는 서해안 고속철



고창군은 세종시 현지에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다.

도를 연결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했다.

또 농림부 등을 방문해 추가사업들을 설명하고, 부처 방문후에는 세종시 현지에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참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로나 이후 국가 정책 방향과 맞는 고창형 지원 방안도 마련해 국비 추가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